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 VI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2011

5

Worldview Interview

『성경은 드라마다』 저자, 마이클 고흐인

Worldview Focus

제사,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기독교세계관으로 기업하기

Book Review

『신의 언어』, 찬반논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연회의 시작 - **엘타워**

호텔 가격의 거품은 걸러내고 품격만을 남겼습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선택으로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엘타워에서 국내 최고의 연회를 경험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닛산,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비즈니스의 무대로 **엘타워**를 선택했습니다.



닛산 / 그랜드홀



마이크로소프트 / 그랜드홀



2010 SFAA 서울 컬렉션 / 그랜드홀



인텔 / 매리골드홀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페셜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예약·문의 02-526-8600 ~ 4 | 양재역 7번출구 바로 앞 위치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 VIEW

발행인

손봉호

편집인

김승욱

편집

차명실

편집위원

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종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임춘택

제작

한국학술정보

2011년 5월호

월간 WORLDVIEW 통권 131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02-754-8004

E-mail

(사무국) info@worldview.or.kr

(학회)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facebook.com/c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 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 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상단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www.worldview.or.kr 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CONTENTS 2011.5

WORLDVIEW FOCUS

04 제사,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손봉호**

PEOPLE & PEOPLE

07 **특별인터뷰**

『성경은 드라마다』의 저자 마이클 고티 교수

CHURCH & MISSION

14 **세계관 목회 리포트**

철저한 성경적 교육을 통해 주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교회

WORLDVIEW COLUMN

18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김종락**

21 말의 굴욕 **박동열**

26 성경적 경영시리즈 1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업하기 **한정화**

30 **고전교육 시리즈 2**

위대한 배움의 도구들, 트리비움 **안정진**

35 **김명엽의 찬송교실 3**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찬송시 **김명엽**

36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재개발과 교육의 필요성 **정희영**

BOOK REVIEW

38 『신의 언어』 **박희주**

42 『신의 언어』 유신진화론 대한 비판 **이승엽**

WORLDVIEW NEWS

48 **활동보고와 후원안내**



祭祀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무조건 반대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성화하자

글 손봉호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모든 문화의 성격은 그 지역의 지배적 종교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형성된 문화에 기독교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거의 불가피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그 문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종교에 들어있던 우상숭배 요소와의 갈등이다. 바로 그 갈등 때문에 복음전파가 어렵게 되고 심지어 순교자까지 생겨나는 것이다.

한반도 문화의 성격을 결정할 정도로 유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민족이 한반도에 이주해 올 때 가지고 들어 온 종교가 무속이었기 때문에, 불교보다는 중국 고대 무속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교에 훨씬 더 친화적이었을 것이고 그만큼 더 깊숙이 한반도 주민들의 의식에 파고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교에서 우상숭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일 것이다. 제사에는 조상의 은택을 감사하며 그 혼백을 대접한다는 요소와 조상의 도움을 얻으려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제사에는 효도의 정신도 반영되어 있고, 같은 조상을 둔 가족들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도 만들어 준다. 이 둘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제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효도와 가족 간 유대는 문화의 일반적인 세속화 과정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어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오히려 되살리고 강화해야 할 미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사와 관련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시도해야 할 것은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화시켜 우상숭배 요소를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를 살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는 가능한 한 심한 반발을 피하면서 전통적인 제사를 대체하는 의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우상숭배라는 오해를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통적인 조상 추모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식을 제정한다.

소위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 바울 사도의 경고(고전 8:10)를 고려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상숭배의 풍속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바울 사도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사문제 때문에 교회 출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상숭배라는 오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통적인 조상 추모의 정신을 최대한으로 살려 그들의 교회 진입을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추모행사는 고인의 혼이 아니라 고인을 기억하고 그의 명예를 높이는 것과 가족의 연대를 돈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오해를 자아내지 않으려면 추모행사에 조상의 혼백이 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추모의 더 큰 의미는 가족들이 고인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고인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 또한 그런 행사를 통하여 고인과 관계되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므로, 갈수록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가족들의 정신적 건강과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추모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독교

의식은 가능한 한 이용한다.

이미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각종 기독교 추모행사는 우상숭배라는 인상을 자아내지 않으므로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장례행사 때 빈소에서 고인의 영정을 올려놓게 하는 것, 문상하는 사람이 영정 앞에 꽃을 놓고 묵념하는 전통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용인하는 풍속으로 정착되었고 아무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추모는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후손이 살아 있는 기간에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추모가 고인을 회상하고 그 은덕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고 기억할 수 없는 선조를 추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의미가 없다.

둘째, 추모행사는 기일에 국한하고, 설과 추석에는 가족 모임으로 추모를 대신한다. 기일 이외에 설과 추석에도 추모행사를 하는 것은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조상의 은덕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고 원망스러워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조상의 명예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셋째, 현 시점의 한국 문화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상황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진, 녹음된 음성, 꽃, 묵념, 약력, 회고, 식사 등은 추모행사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지방, 제상, 제물, 향, 곡, 절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추도예배와 추모행사

한국 개신교에는 다른 나라 개신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추도예배라는 의식이 생겨났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것이 제사를 대체한 의식이란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죽은 조상에게 절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이므로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조상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추도예배

를 도입했을 것이다.

물론 제사의 대체물로서의 추도예배에는 조상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예배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맞추어야지 조상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사나 추도예배나 모두 실제로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추도예배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 하거나 그리스도인에게 금지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형식을 이용하되 그 내용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바꿈으로 훌륭한 기독교 의식으로 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심하면 조상이 사망한 날에 온 가족과 친족이 모여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상을 주셔서 한 가족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비록 핵가족화 하고 친족의 의미가 약해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족과 친족이 우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에 가진 의미는 적지 않다.

또한 추도예배를 계기로 같은 조상을 가진 친족들이 모일 수 있고 유대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유대가 단순히 자신들 사이에 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뤄짐을 인정하고 그 유대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및 사회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추도예배와 유사한 동방교회의 기념예배에서 배울 요소들도 있다. 즉 조상들의 죽음을 생각함으로 땅위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memento mori) 좀 더 뜻 있게 살기를 다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 외에 우리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요소도 포함할 수 있다.

결코, 부모 공경은 제5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

체가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부모와 조상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조상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차원의 효도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주위 사회가 알게 함으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보다 쉽게 수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세부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추도예배를 드리거나, 다음과 같은 행사로 기존의 추도 행사를 대체하면 추모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거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간단한 기도와 찬송 후 가족이 둘러앉아 고인을 회고하는 것이다. 고인의 훌륭한 점이나 자신과 관계되어 기억하고 싶은 사건들을 회고함으로 고인의 명예를 드러내고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제시함으로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때 고인의 약점은 드러낼 필요가 없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공정해야 하지만 추모행사에서는 고인의 장점만 부각시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후손들이 가문에 대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고 어린 후손들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순히 제사상 앞에서 절하고 음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뜻이 있고 후손들에게도 고인을 진정으로 받들었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나) 참석자들이 정성껏 헌금하여 가족이나 친족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고인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가족이나 친족이 없으면 가까이 사는 장애인이나 고아, 소년소녀 가장, 복지기관에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으로 끝내는 제사보다 고인에 대한 후손이나 유가족의 정성을 훨씬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며,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을 바꾸자! 로봇으로 바꾸자!

로봇교육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이로비로 시작하세요.

네트워크 기반의 로봇 아이로비는
 다양한 콘텐츠에서
 새로운 기능의 라이브업데이트까지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영상인식(카메라)**
외부영상인식
- 음성인식(마이크)**
마이크 통해 외부소리 듣고 인식
- 소리재생(스피커)**
스피커를 통해 말하거나 음악을 재생
- 근접 장애물 감지(IR센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스스로 피하기
- 추락방지(바닥감지센서)**
계단이나 낭떠러지에서 멈추기



- 상호작용성** : 사물인식, 음성인식, 터치
- 이동성** : 자율주행, 수동주행
- 관계성** : 안면표정, 정서적 언어의 사용
- 감정표현(안면LED)**
눈, 입, 볼의 다섯 가지 감정표현
- 장애물감지(초음파 센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동속도 조절
- 디스플레이 & 터치스크린**
화면을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 조작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즉시 확인
- 충돌방지(범퍼센서)**
장애물 충돌 시 스스로 감지해 정지

유아의 **학습도우미**



로봇을 통한 학습 흥미유도

선생님의 **수업도우미**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학부모의 **안심도우미**



우리아이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

유아교육기관의 **홍보도우미**



첨단 멀티미디어의 앞선 이미지

특별 인터뷰 | 『성경은 드라마다』 (MP)의 저자

마이클 고힌 교수

마이클 고힌 교수는 전직 레슬링 선수답게 아주 풍채가 좋고 다부졌다. 그는 생각이 분명하고 예리하였으며 말에 힘이 넘쳤다. 통역으로 수고하신 신국원 교수가 많은 부분 고힌 교수의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다.

이 글은 큐티저널 2011년 봄호에 게재된 것으로 출판사의 동의를 구했다. - 편집자 주

교수님은 자신을 어떤 스타일의 말씀 사역자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젊어서 저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생활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신약은 1주일에 한 번, 구약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통독을 했어요. 나중에 개혁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결국엔 초반에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엔 아주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지냈어요. 성경 대학(칼리지)에 다니면서 성경 코스들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성경을 읽었어요. 한 3~4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 때 이후 열심히 성경 공부 한 게 지금 오늘날의 큰 자산이 되었어요. 저는 철저히 성경 말씀 위에 선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됐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20세까지 전혀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아니고 교회는 다니긴 했어요. 플로리다에 가서 처음에 체육과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회생활 했어요. 사실은 어떤 예쁜 여학생을 봤는데 그 여학생 보고 싶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 3장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토하여 내치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3:16절)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데 듣는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사실 나는 미지근한 것도 아니었고 아예 찬물이었는데(웃음),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웃음)...그런데 그 말씀이 기분 나쁘면서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예 교회당 문을 박차고 예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믿든지... 그래서 절대 안 믿겠다고 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3시까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새벽 3시쯤에 내가 안 믿는 쪽으로는 못 간다는 결론



소외된 자
함께 성경



에 이르렀어요. 저는 그때 “이제부터 제대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게 어떤 극적인 변화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저처럼 모두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교수님은 매우 활동적인 스타일을 가지신 분인데... 공부하는 것은 또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셨던 교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 변화되셨나요?

사실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선교사가 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를 해 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졸업할 때 즈음에 캐나다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이 “굳이 외국에까지 가서 선교할 필요가 있나? 캐나다가 선교지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기독교인이 20% 미만이에요. 그

나마 자유주의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특별히 벤쿠버 같은 데는 유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저에게 외국에 나갈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집이 캐나다 토론토 근처니까 토론토 근처에 교회를 개척 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자신도 없고 할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보통 서구는 교회 개척을 여러 단계를 거쳐 매우 조직적으로 해요. 그 단계를 거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교회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저는 상당히 성공적인 목회를 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 개척교회의 시작이 7년을 족 갔어요. 그런데 7년 동안 분명해진 사실은 설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은혜로운데 목회, 즉 돌봄 사역은 별로 은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초청이 도트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오게 된 거예요. 도트 칼리지는 아이오와 시골에 있어요. 목회 하면서 힘들어서 갔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로 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강의

“ 세계관이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깔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사 하는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성경공부를 통해 세계관을 가르쳤어요. ”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 평가가 항상 최상위로 나왔어요. 학생들도 너무 좋아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지요.

교회가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면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 할 수 없다! 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전에 제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



교수님은 가르치는 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줄곧 같이 목회 사역도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저는 도트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 사역에 대한 미련을 못 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주변 시골 마을에(신호등이 몇 개 없는 작은 도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농촌 마을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이 정도 규모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마침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제가 그 교회에서 2년 5개월간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도트 칼리지에서 저는 다시 캐나다 해밀턴의 리더머 기독교 대학(Redeemer College)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목회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온 바로 그 다음날 해밀턴 Christian Reformed 계열의 한 교회(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는 저에게 “당신이 전에 CS

서 “지금 교회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다그쳤어요(웃음). 그래서 할 수 없이 도트 칼리지 출신 학생들 가운데 신학공부를 마친 학생 2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이게 1999년 일인데 지금까지 한편으론 교회, 한편으론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신학교 교수로서 이상적인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과 목회 현장을 둘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발은 학교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지금까지 사역해 왔어요.

교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책이나 논문 같은 것은 안 쓰겠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말하는 사람이지만 글 쓰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더머 칼리지에 왔을 때 교무처장 엘린 포터라는 굉장히 강한 여성이 대놓고 저

한데 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짐을 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면서(publish or perish) 대놓고 화를 냈어요(웃음). 그래도 저는 깨끗하게 책 같은 것은 안 쓴다고 버텼어요. 그러나 오래 버티지는 못했어요(웃음). 사실 제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제가 먼저 나서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저와 같은 방식으로 강의할 교재가 없었습니다. 교재가 있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크레이그 바솔로뮤(Craig Bartholomew)에게 부탁하니까, 저보고 같이 쓰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겠다고 해서 함께 쓰게 된 거예요. 바솔로뮤는 구약학자여서 구약 부분을 쓰고 저는 신약을 썼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는 누가 쓸 거냐고 서로 미루다가 동전 던지기에서 제가 져서 제가 쓰게 되었어요(웃음). 가톨릭에서도 이 책을 쓰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첫 출판에 만권 이상 팔렸어요. 처음에는 리디머 칼리지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쓴 책인데 정말 놀라운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현재 신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죠.

세계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목회적인 관심에서 세계관 운동을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세계관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대학에서의 세계관 공부라는 것은 좀 희귀하죠. 따로 가르치는 과가 없어요. 근데 사실 세계관이라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깔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위에 철학이 있으면 유물론적 철학이 되는 거죠. 신학도 사실 세계관 밑에 있고, 과학도, 체육도, 그 밑에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저는 세계관을 학문적인 관심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목회적인 관심에서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과 실천적인 관심을 갖고 세계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성경공부

를 통해 세계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르쳤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세계관 공부라는 것이 여태까지는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리디머에 올 때는 두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첫째는 기독교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저의 전공인 선교입니다. 저의 박사학위가 교회의 선교(mission of church) 쪽이거든요. 대부분 세계관을 공부하려면 똑똑해야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리디머 칼리지에서 세계관을 가르치는 사람은 대가 알버트 월터스 아닙니까? (웃음) 또 거기에 하스라고 유명한 조직신학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 하고 깊은 토론도 하고 때로는 서로 논쟁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의문은 이런 어려운 세계관 이론 이전에 학생들이 우선 성경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일종의 스토리로 아주 쉽게 가르치는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안목을 넓혀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더 테크니컬하게 고급단계를 가르쳤어요. 기존과는 다른 일종의 커리큘럼의 개척을 시도한 것이지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내가 성경을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요. 이걸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거꾸로 되어야 해요.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 기초한 삶을 이야기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성경을 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든 신앙생활은 성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세계관 운동은 커지

“저는 성경의 큰 흐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꼭 하면서 세계관 교육은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 성경, 이야기 성경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큰 맥을 잡아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고 넓어지는데 정작 이 세계관 운동에 성경적인 뿌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의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세계관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세계관을 공부해본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뭘 별거 없네!”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내가 세계관을 배워서 무얼 했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부만 한 경우이지요. 또 한 부류는 그나마 좀 나은 부류인데, “별거는 없지만 성경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다.”라는 부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적 세계관이든, 조직 신학이 됐든 그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은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초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체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근대적인 뿌리를 찾으면 아브라함 카이퍼를 들 수 있습니다. 카이퍼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축소하고 신앙도 너무 축소해서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으로 축소해 버리고,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운동을 시작한 카이퍼 역시 성경을 읽는 신앙의 뿌리가 있었기에 세계관 운동을 온전히 전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기독교 세계관 책에서 다루지 못한 것이 무엇이나면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의 큰 흐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

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관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 데리고 “세계관 교육하자, 자 이제부터 따라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 꼭 하면서 세계관 교육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 뭘 하시는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어린이 성경, 이야기 성경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큰 맥을 잡아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통찰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관 교육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젠 좀 더 조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교수님 장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좋은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디 한국교회 안에 성경이 기초가 된 세계관 운동이 불 일듯 일어나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세계관 운동은 결코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의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아주 실제적인 운동입니다. 이 귀한 일에 한국교회가 힘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비록 주님 오시기까지 큰 승리가 없더라도 선한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갈증과 배고픔은 주님의 날에 비로소 드러나는 주의 정의와 위로 안에서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요체라 생각합니다.



■ 일시: 2008. 10. 12(주일) ● 기
 ■ 강사: 담임목사 / 양금희 교수(교
 ● 교
 ■ 유아부: 10. 5(주일) 10시30분
 ■ 유치부: 10. 12(주일) 10시30분

기독교 세계관 목회 리포트 | 개봉교회

철저한 성경적 교육을 통해 주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교회

개봉교회는 1974년에 창립되어 금년에 37주년 된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다. 개봉교회의 특징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자 삼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방향도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개봉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을 크게 나누어 보면 ‘기독교교육’과 ‘선교’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사역 중에 기독교 세계관을 따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세계관을 포함한 성경적인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기독교교육의 사역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교육 주일

개봉교회의 기독교교육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기를 힘쓰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부분이 잘못된 다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 놓는다 하여도 결국엔 변질되거나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도 철저하게 성경의 정신을 따라야만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봉교회의 이러한 철저한 성경적 교육의 노력은 매년 10월초에 행하는 기독교교육주일에 집약되어있다고 하겠다. 금년에 14회가 될 기독교교육주일은 개봉교회의 기독교교육의 큰 잔치날이다. 이 날은 주일 예배에서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교육의 주제로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된다. 먼저 주일 오전의 예배에서는 모든 교우들을 대상으로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을 설교한다. 기독교교육이 비단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도 해당됨을 알리고,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후에는 교사들 논문발표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 중에서 매년 교사들이 기독교 교육에 관한 논문을 쓰는 교회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교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의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논문 발표는 관계된 부서들이 모여서 함께 진행하며, 논문 발표 후 서로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발표 후에는 기독교교육 전문가를 모셔서 '교사세미나'를 연다. 주로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관련 교수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여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현대 한국 교회의 기독교교육의 흐름과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세미나 후에는 모든 교사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교제하고, 저녁에는 '기독교 교육의 밤' 예배를 통하여 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독교교육 주일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기독교교육 주일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기독교교육연감'에 자료로 실어서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창조신앙 교육

앞서 설명하였지만, 기독교교육은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믿고 교육해야만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다음세대를 걱정하고 있다. 신앙의 대 잇기에 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는 공교육은 신앙의 대 잇기를 하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창조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와 진화는 각각 기독교와 세속적 인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이다. 교회와 학교에서 창조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자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창조신앙교육 커리큘럼의 첫 머리글이다. 개봉교회 창조신앙교육 커리큘럼은 교회학교 유년부로부터 청년부까지를 그 대상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편성하였고, 여름과 겨울 성경학교와 캠프를 실시할 때 반드시 이 창조신앙교육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고 있다. 강의는 한국창조과학회의 강사를 초빙하거나 구입한 자료를 사용하여 교사들이 미리 준비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서별 교육편성표이다.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과정
유년부	상반기(겨울교육행사)	생명의 여행
	하반기(여름교육행사)	공룡탐험대
초등부 1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창조론 & 진화론
	하반기(여름교육행사)	화석이야기
초등부 2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창조이야기
	하반기(여름교육행사)	하늘 위에 물
소년부 1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생명의 기원
	하반기(여름교육행사)	공룡
소년부 2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노아의 홍수와 방주
	하반기(여름교육행사)	음식물에 나타나 창조섭리
중등부 1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생명의 기원
	하반기(여름교육행사)	창조와 진화
중등부 2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동물창조의 섭리
	하반기(여름교육행사)	인체창조의 신비
중등부 3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지질학 화석
	하반기(여름교육행사)	인류문명의 기원
고등부 1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우주의 기원
	하반기(여름교육행사)	우주의 신비와 지구의 나이
고등부 2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생명의 신비
	하반기(여름교육행사)	진화론 교육의 허구
고등부 3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인간복제
	하반기(여름교육행사)	그랜드캐년의 신비
청년 1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지적 설계의 증거
	하반기(여름교육행사)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1 (신비의 땅 지구)
청년 2년차	상반기(겨울교육행사)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2 (동물의 세계)
	하반기(여름교육행사)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3 (창조의 꽃 사람)

개봉상록대학 및 개봉어린이선교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록대학은 쉽게 이야기하면 노인대학이다. 이러한 노인대학들은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웬만큼 규모가 되는 교회들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상록대학은 다른 곳에서는 잘하지 않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공부반'이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다. 그러나 성경공부반을 운영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교회의 성경공부반은 전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새가족반을 만들어서 우선 기초적인 신앙교육을 실시한다. 그 이후 성경공부반으로 올려드리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자면 성경공부반을 없애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유치하여 교회냄새가 나지 않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숫자가



적더라도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 상록대학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한다. 그 대신 프로그램을 더욱 고급화 하여 참여하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렇게 상록대학(노인대학)을 통해서도 성경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노인들의 세대가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는 시기이지만, 신앙적으로도 흔들거리거나 많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남은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을 교육하는 노인교육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교회건축을 앞두고 부득이하게 2011년에 휴원을 하게 된 개봉어린이선교원은 취학 전 아동을 성경적 정신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교우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맡기고 있다. 이 어린이선

교원 역시 철저하게 성경적 교육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어려서 형성된 성경적 정신은 무시 못 할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서 행하는 교육프로그램들 외에도 선교원 자체 내에서 개발된 성경교육 커리큘럼, 성경캠프, 예배 등을 통해 성경적 정신을 고취시켜오고 있다. 휴원을 한 지금도 기독교적 교육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교육은 성경교육이며, 성경에 기초한 신앙관,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을 세워가는 교회의 주요 사역이다. 개봉교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다.



노창영 목사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교회사역학과 신학을, 영국과 캐나다 Providence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사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평화한국 이사이며 한세대학교 강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교회개혁을 위한 역사단상 1

글 김종락 경북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회의체에 의한 교회조직

주지의 사실이지만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교회제도이다. 1560년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스코틀랜드 교회는 가톨릭의 주교제(episcopacy)를 버리고 ‘회의체에 의한 교회조직’(government by assemblies)인 장로교 제도를 채택하였다. 장로교 조직과 정치는 1578년에 발간된 <제2 치리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에 잘 나타나 있다. 가톨릭교회의 조직은 교황, 대주교, 주교, 교구성직자로 이어지는 사람에 의한 피라미드식 위계질서였으나, 장로교 조직은 사람대신 회의체를 돕어서 총회, 노회, 당회로 이어지는 회의체의 위계적 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회의체에 의한 교회조직’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장로(presbyter, 설교 장로와 치리 장로 모두 포함)들 간의 지위와 권한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있었지만 이는 가톨릭의 대주교나 주교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설적 존재가 아니라, 단지 총회나 노회가 열리는 동안만 존재하는 사회자(moderator)에 불과 하였다. 총회나 노회가 폐회 전에 총회장이나 노회장을 선출한 것은 다음 회의를 준비할 사회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교단의 최고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러한 제도가 지니는 본래의 뜻은 한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장로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교제의 대주교나 주교만큼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스코틀랜드 교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교들이 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다

른 이들을 박해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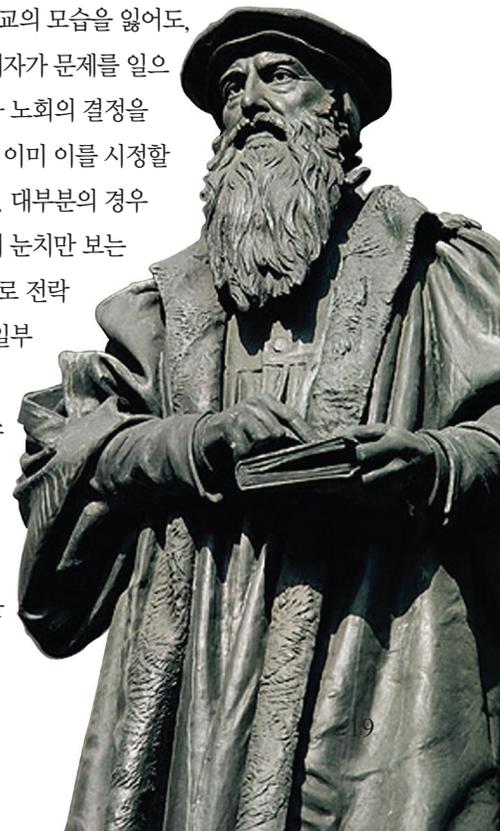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단위가 노회(presbytery)라는 것이다. 이는 개별교회는 하나의 예배처소에 불과하며, 노회의 지도와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교회가 목회자를 선정하고, 장로를 선출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허락하고 주관하는 것은 노회이다. 장로선출과 임직 전 과정을 노회가 주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회는 개별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감찰하는 의무를 지닌 것이다. 이는 개별교회의 전행이나 비 성경적 결정을 통제하며, 신학적, 교리적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방안이다. 얼핏 생각하면 노회는 개별교회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교회의 유익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별교회는 장로와 목회자들의 비행을 노회에 알려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개별교회의 지도자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현실

16세기 말, 17세기 스코틀랜드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교회가 개혁교회 가운데 ‘가장 잘 개혁된 교회’(the best reformed church)이며, 하나님이 제정한(divine right) 교회라고 믿고 있었다. 이 같은 스코틀랜드인들의 인식은 17세기 중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잉글랜드 혁명과정에서 개척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장로교가 하나님이 제정한 교회제도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다. 모든 교회제도가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주류가 장로교라는 사실은 16, 17세기 스코틀랜드인들과 잉글랜드인들의 인식을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 먼저 사역자들 간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총회장, 노회장의 선출이 교권과 금전적 이해관계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히 회의체의 사회자인 총회장과 노회장의 자리는 막강한 권

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종종 그 권한은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남용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 권력을 얻기 위해 표를 돈으로 매수하고, 이권을 나누어 갖기 위해 당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회장선거가 돈 선거로 변질되었음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돈 선거를 통해서라도 회장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날 이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역자들 간의 평등이라는 장로교의 원칙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기총을 해체하려는 운동이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이 한국 장로교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각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다음으로 장로교의 노회중심 정치라는 원칙을 살펴보자.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장로교는 무늬만 장로교이지 노회가 제대로 살아있는 교단은 없다. 최근 어느 교회지도자가 “한국에 장로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한 것은 현실을 바로 대변한다. 대부분 장로교단의 노회는 개별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교회가 장로교의 모습을 잃어도, 개별 교회의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개별교회가 노회의 결정을 무시해도 노회는 이미 이를 시정할 힘을 잃어버렸다. 대부분의 경우 노회는 큰 교회의 눈치만 보는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략해버린 것이다. 일부 목회자들이 개별교회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도 노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교회의 설교 내용이 빛나가도, 성례가 빛나가도, 예배가 말초적이 되어도, 교회가 기업이 되어도 노회가 문제 삼는 일은 사라지지 오래다. 총회와 노회는 교회의 정치(polity)가 행해지는 곳이 아니라 교권 모리배들의 정치(politics)가 행해지고 있는 장일뿐이다.

역사로부터 배우자

최근 수년간 가톨릭교회와 불교계는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나날이 그 교세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초에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청빈한 삶을 산 것으로 인해 많은 세인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고,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에서 일생을 헌신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는 가톨릭 교인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감동으로 울리고 있다. 또한 불교 지도자였던 법정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산 것으로 인해 불교에 대한 세인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반면 개신교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수년간 개신교는 가톨릭과 불교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불신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돈 문제, 여자문제로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해 6억 원의 사례를 받았으며, 성추문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목회자의 사임에 20억 원의 퇴직금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조금 큰 교회 담임목회자의 은퇴 예우는 개신교 타락의 핵심을 보여준다. 공식적인 퇴직금은 물론, 수억의 위로금, 아파트, 차, 그리고 연금

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회사 직원들이 이 같은 대우를 받는단 말인가? 가슴이 아프다. 개신교인인 것이 부끄럽다. 다른 누구보다 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평생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친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교우들과 세상을 실망시킨다면 수많은 개신교도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할까? 평생을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느껴야 하는 소외감은 어떨까? 이 모든 부작용도 노회와 총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왕이 된 다윗이 청년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한 것은 권력의 속성 때문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한 역사가 액톤 경(Lord Acton)의 말은 장로교 원리를 대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형교회 목회자의 타락은 그 손에 절대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노회와 총회의 정성적 작동만이 이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역사를 거울이라고 하였다. 16,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다. 기독교의 본질이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배우고, 역사로부터 구원과 개혁을 배운다. 한국 장로교회는 역사를 배워야 한다.

말의 굴욕



글 박동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성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등장하는 주제는 말이다. 기독교의 본질이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말을 하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본질이 '말(씀)'이시다. 이 말(Parole)이 하나님 곁에 있었고, 잠시 잠깐 육신으로 변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은 곧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을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면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모두 말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 인간의 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인간의 말과는 다르게 절대로 비워 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비워서 스스로가 직접 행동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빛이 있도록 굳이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 분은 단지 빛이 있으라고 말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 디바르는 그 자체가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은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효력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의 공간, 디바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며, 우리는 바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아니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 문제는, 이 디바르 공간, 하나님의 말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현대인은 직접 정신이라는 공간, 개념이라는 공간, 영적 세계라는 공간, 역사라는 공간을 창조해 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한 자들의 대부가 되기도 하고, 거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위엄 가득한 창조주가 되기도 하고, 착한 아빠가 되기도 하고, 목자가 되기도 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각종 예언을 풀어내는 불가능이 없는 능력자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려고 열망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단지 모세만이 예외적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말 속에 있는 것이며,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즉 하나님의 말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 있으며, 이 말을 통하여 그분의 창조적인 힘, 명령하는 힘, 하나님의 결정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은 한번 외치고 사라지거나, 한순간 우리의 뇌리를 때리고 망각 속으로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란 도저히 부인



막강한 이미지 사회가 되어 버린 오늘날, 말은 철저히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미지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환각시키고, 사회통제에 강하게 참여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정보는 과잉되고, 말의 기능과 역할은 정보의 전달로 축소되었고, 진정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배제시키면서 그 질은 현저히 떨어졌다

을 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흔적을 남기며, 이 흔적은 세상 속에서 요동치고 역사를 만들어 버리고, 인간의 심한 궁핍과 근본적인 허영을 여지없이 드러내 버리고야 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의 힘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은 단순한 어휘와 통사구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버린다. 인격이 된 이 말에 기독교의 모든 존재근거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의 힘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가되었다. 예컨대,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각 짐승에게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아담 앞으로 줄줄이 짐승들이 지나갈 때, 아담은 각 존재에게 하나씩 그 이름을 부여하면서 창조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느 시인의 문구처럼, 아담은 짐승과 사물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모든 존재와 관계맺음을 시작했다. 그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은 아담과 일체의 관계가 배제된, 자기와 무관한 단순한 물질이었으나,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 즉 기표(記標, 시니피양)와 기의(記意, 시니피에)를 설정함으로써 완전한 의미의 세계를 연 것

이다. 이렇게 하여 아담은 하나님과 창조물과 진실한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주권적 힘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말은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은 진정한 자유의 표현이며,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까지 자유롭게 한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담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쁘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이미지 사회에서 말의 위상

그러나 막강한 이미지 사회가 되어 버린 오늘날, 말은 철저히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미지가 지니는 직접성, 즉각성이란 특성은 모든 것을 환원불가능하게 하고, 명령적이며 비시간적으로 만들고, 일체의 비판적 거리를 삭제하면서, 청자가 누리는 자유의 여지를 빼앗아 간다. 말이 늘 하나의 신비며, 해석해야할 수수께끼이며 무한한 역설의 진리를 담지하고 있으나, 이미지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환각시키고, 사회통제에 강하게 참여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이미지의 승리와 기술의 발전은 더욱더 강한 이미지의 과잉을 만들어내고, 말을 선전과 광고에 철저히 이용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정보는 과잉되고, 말의 기능과 역할은 정보의 전달로 축소되었고, 진정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배제시키면서 그 질은 현저히 떨어졌다. 급기야 오늘날 말은 진실을 전제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진리를 내포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진리는 허구적이고, 거짓되고, 위조되었으나 유일하게 그럴듯하



게 보이는 이미지로 포장된 채, 사람의 감정과 감정이 정신없이 뛰어나면서 얻는 부산물 정도로 여기게끔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허한 수다일 뿐이며, 진실을 알 수 없는 정보를 끌어 담은 뉴스보도처럼 무의미할 뿐이고, 이미 누군가 해석해 놓은 어휘다발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 기술사회에서 만남의 부재, 화자와 청자의 부재가 이러한 말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자도 자기 자신을 통해 아무 것도 말할 것이 없고, 듣는 자도 자기 자신을 통해 아무 것도 받아들일 것이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결코 단어들은 말(parole)이 될 수 없다. 말은 스스로 자기 자체를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만의 상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더 아우성을 치는 모습은 어떻게 된 것일까?

언어의 향연, 말의 굴욕

내가 이렇게 말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은, 이번 주에 겪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그 하나는 어떤 집사님과 전화통화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연속된 자살 소식 때문이었다. 며칠 전

나른한 오후,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나에게 생전 전화를 하지 않았던 집사님이 그날따라 나에게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평소 무관심한 나의 태도를 은근히 꼬집으면서 이번 주 있었던 부흥회에 대해 분개하셨다. 분노의 원인은 부흥강사의 언행과 메시지 내용 때문이었고, 그것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교회의 태도 때문이었다. 늘 그렇듯이 부흥회에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있으나, 이번의 경우는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았다. 일단 강사는 깡패출신임을 내세워 상스러운 욕과 교회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지막지하고도 거친 언사를 휘둘러댄 것이다. 녹취하지 말라는 친절(?) 당부와 함께, 그의 말 대부분은 돈을 내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며, 목회자를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절정에 이 분은 목사님께 드릴 헌금을 작성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착한 성도들은 헌금을 작성했고, 욕지거리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여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집사님이었던데, 이번 부흥회의 내상은 깊었던지 조목조목 비판의 날을 매섭게 세웠다. 나는 그분의 분노 어린 논리에 단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다.

“KAIST 학생들은 인성과 창의적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처럼 훌륭한 과학자도 필요하지만 빌 게이츠와 같이 자유로운 발상으로 꿈을 펼치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라는 교육철학을 내세우면서 2006

년 화려하게 등장한 서남표 총장은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교수’라는 모토를 내세워 정년보장 심사 강화, 수업료 차등 부과제, 100% 영어 강의 등으로 대학 개혁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란 환상적인 표어는 4명의 학생들의 연속적인 자살과 “이런 학교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사실 대학의 개혁이란 미명아래 시장에 팔린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비단 KAIST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대학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서울대 교수는 은퇴하면서 대학총장은 세계대학평가 랭킹에만 몰입하고, 교수들은 SCI 등재 논문편수 세는데 여념이 없고, 학생들은 오로지 스펙쌓기에 청춘을 보낸다고 일갈했다. 그리고선 ‘누가 대한민국의 길을 묻거든 절대로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지 말라’고 열(spirit)빠진 대학의 실상을 폭로하였다.

참으로 교회에는 각종 집회와 행사가 난무하고 덩달아 설교가 쏟아진다. 화려한 미사여구와 감동적 문장들이 쏟아진다. 신학교에서는 각종 신학과 이론들이 막강한 상징자본을 구축했다. 사람이 언어기호로 구축한 표상체계들은 점점 정교하고, 세련되어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과 진리 비슷함을 뿜어낸다. 그리고는 그곳에 빠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한 언어의 향연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은 무시할 수 없는 정신적, 정서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개혁과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화려한 온갖 수사가 난무하지만 문제는 대학의 구성원과 학생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참으로 오늘날 말은 철저히 굴욕을 당하고 있다. 교회에서든, 대학에서든 이제 우리의 말 속에 이웃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진실은 사라지고, 의사소통은 사라졌다. 우리의 말은 한낱 수다일 뿐이며, 무의미한 나불거림일 뿐이다. 그것이 한 시간 예배 속에 존재하는 명설교이든지, 찬양집회의 가슴 떨리는 멘트이든

지, 화려한 대학의 장밋빛 청사진이든지, 또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한낱 사람의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말보다는 진실한 관계회복이 우선

이제 또다시 말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 사건이 필요하다. 이제 2000년 전의 가난한 나사렛 청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청년을 뒤따르는 21세기 가난한 청년들을 통해서 말이다. 나사렛 청년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였으나, 오늘날의 청년들은 말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말을 영원히 화해시키기 위해서 성육신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철저히 굴욕당한 말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이웃과의 진실한 관계를 철저히 회복함으로써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웃을 재발견하고, 그들과 진실함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말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예화와, 성서 해석과, 화려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참히 굴욕당한 말일 뿐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잃어버린 장애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말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작 두려운 것은 굴욕당한 말로 인하여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말의 타락으로 이미 우리에게 돌아서신 아버지의 등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를 근심해야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한기총 해체, 전근대적인 대학 시스템의 해체가 문제가 아니라, 순교자의 피로 이룩한 영육의 우리교회들과,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 산업역군으로 일하신 아버지들이 쌓아놓은 우리 국가의 해체가 시작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돌아선 하나님의 등을 다시 돌리는 일, 그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서지 않고는 못 배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기도를 시도하는 일이다.



성경적 경영시리즈 1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업하기

글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97년 말 한국을 강타한 경제위기 당시 두 권의 책이 큰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트러스트', 즉 '신뢰' 라는 책으로서, 저자는 세계 여러 나라를 고신뢰 국가와 저신뢰 국가로 구분하여 설명했고, 한국은 저신뢰 국가로 규정했다. 한국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 당시 경제위기는 투명성과 신뢰가 부족한 기업경영과 경제시스템이 가져온 것이라는 데 대해 절실하게 공감했었다.



영적자본과 창조적 역량

그 후 지난 10 여 년간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는 ‘투명성과 신뢰’였다. 과연 한국은 고신뢰 국가로 변화했는가?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국의 투명성 지수는 전 세계에서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규모가 15위인데 비해 부패지수가 매우 높아 고신뢰 국가와는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 한국이 고신뢰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한국 사회의 영적 자본(spiritual capital)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기업선교(Business Mission)의 저자인 케네스 엘드레드는 어느 사회든지 신뢰자본이 형성되려면 먼저 영적 자본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진국에 아무리 원조를 해도 빈곤을 탈피하기 어려운 것은 신뢰자본의 부족 때문이고, 신뢰자본은 영적 자본의 토대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업선교는 경제적 자본 제공만이 아닌 영적 자본의 축적을 지원하여 사회의 신뢰기반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하며, 이는 영적 자본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빈부격차 같은 사회적 요인 때문이지만, 그 근저에는 영적 자본의 약화 내지 변질에 있다고 본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업을 하려면 기업 내에 영적 자본에 기초한 신뢰 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부즈 해밀턴이 제출한 한국에 관한 보고서였다. 이 책은 한국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끼여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여러 가지 해결책은 많이 제시되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문제점, 즉 NATO(No Action, Talk Only) 증세가 심하다고 했다. 한국이 이러한 샌드위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창조적 지식강국으로서 혁신적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창조적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늘어나야만 한국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복지, 통일 비용의 감당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역량을 기업경영을 통해 최대한 발현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높다.

기업의 성경적 경영 핵심원리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 영적 자본의 형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는데 크리스천 기업가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매우 크다. 그들은 기업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경영의 탁월성과 윤리성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성실한 대리인(agent), 즉 청지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핵심원리는 공정(justice)이다. 공정성이란 의사결정시 치우침이나 편파성을 배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원리는 신뢰(trust)로서 일관성, 정직성, 투명성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이며,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배제를 의미한다. 셋째는 책임성(accountability)으로서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듯이 맡기신 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는 것이다. 넷째는 배려(benevolence)로서 포용성, 호혜성, 사회공헌 등을 포함한다. 포도원의 일꾼 비유에서 보듯이 은혜와 관용의 원리에 해당한다. 다섯째는 창조(creativity)로서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인류역사의 발전은 창조의 역사이며 끊임없이 새로

운 가치의 창출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하셨다. 산업혁명 이후 기업의 발전이 있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절대빈곤의 역사였다.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게 한 것이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경영이 발전한 덕분이다. 한국도 지난 50여 년간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이 발전하면서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은 우리에게 일터와 삶을 제공하는 생명업이자 하나님의 창조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기업은 또한 인재개발업이기도 하다. 기업을 통하여 직원들의 역량이 개발되고 성취욕구가 실현된다. 기업은 안보업이기도 하다. 기업을 통하여 축적된 경제력은 국방력의 뒷받침이 되고, 안정된 중산층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 선진국이란 좋은 기업이 많은 나라이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나라다. 좋은 기업이란 경

쟁력이 있으면서 사회와의 공생력, 지속가능성을 가진 기업이다.

한국은 20세기 후반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높은 반기업정서를 가지고 있다. 일종의 성공의 함정, 성공의 복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간에 너무 성공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고 있다. 한국은 국가적 환란을 겪으면서 민족생존과 빈곤탈출에 대한 강한 열망(hungry spirit)을 갖게 되었다. ‘잘 살아보세’가 오랫동안 국가 비전으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왔다.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안, 불신, 불만이 팽배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의 기업과 경제의 운용이 성경적 원리와 어긋나게 경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세속의 풍조와 사조를 따르다 보니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게 된다.

크리스천 경영자의 자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규범과 규율, 올바른 인재 육성, 창조경영, 리더십 개발 등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명령과 선교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기업인은 하나님의 대리인(agent)로서 청지기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성경적 경영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크리스천 경영자의 기본자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책임을 갖는다는 기본 원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의 소유와 주권과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에 근거해야 올바른 방향이 설정될 수 있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과 재능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자원을 개발하고 다스리고 개발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자원을 사용할 때 낭비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기업 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만이 아닌 맡기신 분에 대한 책임의식에 근거해야 한다.

책임의식은 효율성과 함께 효과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사용을 절감하는 데 중점이 주어진다면 효과성은 올바른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얼마나 근접했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고객 니즈의 변화나 기술혁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효과성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와 함께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천 경영자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원리를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인간의 창조성은 신뢰의 조직문화가 기반이 될 때 잘 발휘될 수 있다. 신뢰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높여주고 높은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배려는 심층적 신뢰를 가져오는 요소이기도 하다. 기업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진정한 창조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많은 자원과 능력을 보유한 크리스천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업경영의 핵심 사명은 신뢰성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경영의 탁월성을 실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

고전교육 시리즈 2

위대한 배움의 도구들, 트리비움

글 안정진 마산제일교회 부목사

‘자기 주도적 학습’이 최근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스스로 가르치는 능력이야말로 배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교육은 스스로를 가르치는 ‘배움의 도구’들을 중요시 한다. 정확한 의미에서, 이 ‘배움의 도구’들을 숙달하고 익히는 것이 고전교육의 방법이다. 단테의 번역자로 유명한 도로시 L. 세이어즈(Dorothy, L. Sayers, 1893-1957)의 에세이 “잃어버린 배움의 도구”는 현대적 의미의 고전교육운동의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¹⁾ 이 에세이에서, 그녀는 영국사회 안에서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실패했음을 통탄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중세의 ‘3학과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의 교사이다”라고 했던 어거스틴(Augustine)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전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교육의 방법인 ‘배움의 도구’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1) 이 에세이를 보려면, 『흔들리지 않는 고전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DCTV)의 ‘부록’을 보라.

트리비움의 역사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그 전제에서부터 세속적인 고전교육과 전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들이 많다. 고전교육 ‘방법론’의 역사적 기원은 그리스, 로마 시대(대략 주전 600년-주후 4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이유에서, ‘고전교육’은 그리스와 로마인의 교육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두 문명은 고전교육을 통해 후세대를 준비시킴으로써 거의 천년 이상 동안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스와 로마인의 교육은 주로 문법, 논리, 수사학 공부에 그 초점을 두었다. 이것이 중세를 지나는 동안 수정되고, 다듬어지면서 ‘문법, 논리, 수사학’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트리비움(trivium, 3학과)이다. 중세 시대에 트리비움은 ‘세 길’을 의미하는 라틴어로서, ‘네 길’을 의미하는 쿼드리비움(quadrivium, 4학과)을 준비하는 예비과정이었다. 5세기 중반에 이르러, 3학과와 4학과를 합하여 7교양학과 혹은 ‘자유교과’ (Liberal Arts)라는 새로운 표준의 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²

종 고기를 잡는 기술과 비교된다. 이 배움의 기술을 잘 연마함으로써, 일생동안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고전교육은 언제나 ‘3학과 중심의 교육’이었다. 페린은 이 ‘3학과 중심의 고전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인에게서 물려받아 수정, 보완된 중세 3학과야말로 우리가 복원한 현대 고전교육의 구조, 영감, 지침의 원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이 내가 ‘3학과 중심의 교육’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다.³

‘3학과 중심의 고전교육’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계속 갱신되고 발전되었다.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 그리스와 로마의 작가들과 작품들이 재발견되기 시작했고, 상당수의 고대 사본들을 찾아내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어와 라틴어 연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교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신실한 직분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세웠고, 성경을 원어를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비록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육의 주제와 방침이 ‘종교적 관점’에



위의 도표가 보여 주듯이,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3학과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완벽한 ‘배움의 기술’(Arts of Learning)을 준비하였다. ‘배움의 기술’은 중

서 ‘자연적 관점’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전교육이 존재했다. 19세기와 20세기 중반, ‘진보주의 교육’이 득세

2) Martianus Capella(410-449)는 3학과와 4학과로 구성된 7교양학과의 표준을 제시한 사람이었다.

3) 크리스토퍼 A. 페린, 『고전적 교육 입문』 (DCTV), 25. 이 책은 기독교적 고전교육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입문서 중의 하나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공교육은 문법을 배우는 것에 그친다. 즉 ‘논리학교’의 단계로까지 잘 발전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백과사전식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지를 배우지 못하며, 종합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세이어즈의 표현을 빌리면, 논리학교는 준비된 ‘곡식’을 처리하는 ‘방앗간’과 같다.

하기까지 하버드를 비롯한 수많은 인문고전 대학들은 3학과와 4학과를 중심으로 한 ‘자유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다. ‘자유교과’를 가르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전반을 탐구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둘째는 이 ‘자유교과’를 통해 ‘자유와 구원’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자유교과’는 종종 교양과목으로 번역되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교육이며 구원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학생들은 이 ‘자유교과’를 통해 창조세계를 탐구하고, 모든 종류의 거짓과 오류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트리비움과 발달단계

세이어즈는 아이들을 발달 단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앵무새 단계, 당돌이 단계, 시인 단계’ 이 발달단계들은 트리비움의 각 단계들과 조화를 잘 이룬다.

먼저, ‘앵무새 단계’를 살펴보자. 이 단계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설명을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논리적인 가르침을 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

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관찰과 기억’을 통한 ‘재료의 준비’이다. 당장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

라도 노래와 암송의 반복을 통하여 무한한(ad infinitum)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여기에 어울리는 트리비움의 첫 단계를 ‘문법학교’라 부른다. ‘문법’이란 언어를 배우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각 교과목은 ‘고유한 문법’을 가지고 있다. 수학에서 문법은 곱셈, 나눗셈의 규칙을 포함하며, 지리공부에서, 문법은 산과 강, 다양한 지형, 관습, 의복 등의 세부항목들이 될 것이다. 역사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연대표와 왕의 계보, 시대별 주요 사건들(전쟁과 나라들 간의 협약 등)이 문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중요한 의미에서, 아이들은 이 시기에 신학적 입문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인간이 누구인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를 신구약을 중심으로 배운다. 사도 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등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의미보다 가까이 하고 기억하는데 있다.

다음은, ‘당돌이 단계’로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적용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 중요한 기능이 ‘관찰과 기억’이라면, 두 번째 단계의 중요한 기능은 ‘논리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어울리는 트리비움의 두 번째 단계를 ‘논리학교’라 부른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을 뿐 아니라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품위 있는 ‘논쟁 법칙’을 가르치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이다. 이런 이유에서 ‘형식논리’의 훈련이 강조된다. 하지만 자기주장과 논의에 성실하고 사려 깊은 분석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향한 존경심을 가르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존경심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논리란 바르게 논쟁하는 기술이다. 논리학교에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외우고 정리해 왔던 각 과목의 문법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성을 지니는지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창조와 노아의 홍수와 진화론 간에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각 나라의 지형과 주요한 사건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지금까지 배웠던 교과목들을 종합하고 연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공교육은 문법을 배우는 것에 그친다. 즉 ‘논리학교’의 단계로까지 잘 발전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백과사전식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지를 배우지 못하며, 종합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세이 어즈의 표현을 빌리면, 논리학교는 준비된 ‘곡식’을 처리하는 ‘방앗간’과 같다.

마지막은 ‘시인 단계’이다. 이 단계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하려고 힘쓸 뿐 아니라, 자신을 세련되고 품위 있게 표현하고, 믿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법을 배운다. 이 시기에 설득력 있는 연설과 작문 기술이 요구되며 고학년의 경우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정기적으로 정치연설, 법정연설, 연구보고서 발표 등의 형식으로 스피치하는 훈련을 한다. 여기에 어울리는 트리비움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수사학교’이다. 논리학교에서는 모든 종류의 학문이 서로 연관됨을 보여주었다면, 수사학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지식이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문법, 논리, 수사학은 고전교육의 핵심훈련 내용으로써, 각 교과의 여러 단계마다 거듭 강조된다. 하비와 로리 부루던은 이 세 단계를 각각 ‘지식-이해-지혜,’ 곧 ‘성경적 3학파’로 고쳐 불렀다.⁴ 어떻게 부르든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교육은 방법론과 더불어 그 내용 또한 중요하다. 고전교육은 “무엇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써, 라틴어나 신학과 같은 과목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 다른 것과 차별을 꾀한다(ACCS의 고전학교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기초적인 교육을 위해 역사, 과학, 수학 등 수많은 공통 과목들이 포함된다. 신학은 모든 과목을 섬기는 ‘중’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여왕’으로 기능한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태양과 같이 모든 과목들에 빛을 비추는 중심 역할을 한다. 고전교육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패키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한 다른 교과목들이 아이들의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너무나 다양하고 넓으니 배워야 할 것은 지천에 널려 있고, 배워야 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문법(지식)학교	논리(이해)학교	수사(지혜)학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앵무새 단계	당돌이 단계	시인 단계
문법학교: 읽기, 토론을 통한 사실정보, 문법, 어휘, 구문론 집중교육	변증학교: 전과목에 걸쳐 논리 학습을 통해 원리와 관계를 집중 교육	수사학교: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설과 작문을 집중교육
방법: 찬트, 노래, 반복	방법: 논쟁, 토론, 논의	방법: 논의, 연설, 모방, 실습

4) 더 전문적인 것을 살펴보기 원한다면, 하비와 로리 부루던의 탁월한 통찰을 담고 있는, 『기독교적 고전교육』(DCTY)을 참조하라.



즐거운 상상

고전교육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낯선 것임에 분명하다. 이는 현대 교육과 중세 교육이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 교육은 ‘과목(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 왔다. 즉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한편 중세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었다. 중세 교육은 먼저 배움의 도구를 다루는 법을 연마하는데 강조점을 두었으며 모든 과목을 활용해서 ‘배움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게 했다. 현대의 학생들은 다른 것은 다 배워도 이 ‘배움의 기술’만큼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교실에서 배움의 도구들은 파편화된 채 여기 저기 흩어져있고, 학생들은 학과목들을 통합할 능력과 생각하고 논평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결국 대학은 새롭게 확장된 지식중심의 쿼트리비움만을 수행하고 있는 뿐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세이어즈는 ‘즐거운 상상’을 제안했다. 즉 ‘3학과 중심’의 고전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모든 교육 권위자를 싹 쓸어내고 조그만 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노선대로 실험적으로 훈련해 보자. 남달리 유순한 부모들을 모으고, 트리비움의 목적과 교육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교사들을 세우고, 교사가 적절히 다룰 만큼의 적은 학생 수로 반을 만들 수 있도록 큰 건물과 많은 교직원을 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면 우리는 ‘개정’ 현대판 트리비움의 교육과정을 완성하고 과연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될 지 지켜 볼 것이다.⁵

3학 중심의 고전 학교를 세우려는 꿈은 지난 30년 동안 북미에서는 ‘현실’로 나타났다. 현재 북미에는 3학과 중심의 고전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초중고 및 대학들은 매년 그 수가 늘어나 미국기독교고전교육연합(ACCS)에 가입된 숫자만 거의 300여개나 된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배움의 도구’들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육은 배우면 배울수록 ‘배움의 도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학교가 ‘스스로 배우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말이다. 세이어즈는 “교육의 참 목표는 ‘스스로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교육 지도는 헛된 수고일 뿐이다”고 했다. 우리 역시, 교육의 참된 목표를 잃고 헛된 수고만 하고 있는 않지는? 그녀의 즐거운 상상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길 간절히 고대한다.

5) 랜달 D. 하트, 『흔들리지 않는 고전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DCTY), 192-193.



안정진 목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M.Div.),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Th.M. 신약학), New Saint Andrews College에서 M.A. in Trinitarian Theology and Culture을 공부했다. 아내 조성희와 함께 세 딸(송희, 시은, 유진)을 홈스쿨링하고 있다.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성찬에 관한 묵상 에세이』 (SFC) 외에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찬송 시

글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대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가 개역개정 3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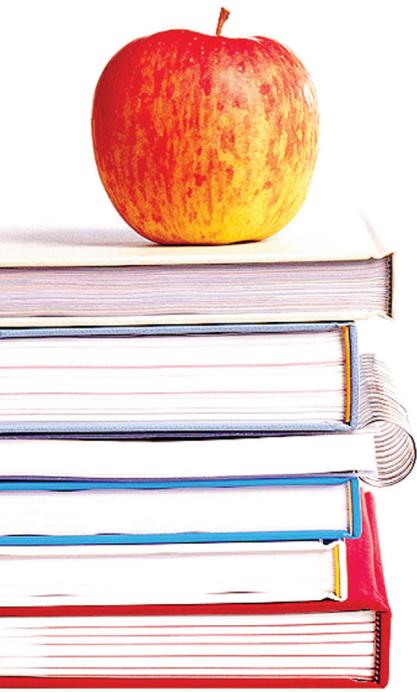
주일 아침 강대에 흰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꽃꽂이를 볼 때면 어제 이곳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있었던 것을 짐작하곤 한다. 그러나 유난히 아름답고 빛나는 장식임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 까? 아무리 맛있고 먹음직한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물린 상이라면 꺼림직 함이 당연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원하신다. 성경에 “너희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첫 아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 갈 것이요 (레 23:10)”,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레 27:26)”했듯이 결혼식에 사용했던 꽃이 아무리 보기에 좋고 버리기에 아깝다고 하여도 그대로 경건한 예배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꽃을 재활용하여 그날 예배에 맞는 준비된 다른 꽃들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으로 장식한다면 모르지...

오래전 교계신문에서 ‘2등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자칫 우리들 단엔 하나님을 1 등자리에 모신다곤 하지만 순간마다 끼어드는 하찮은 것들로 인해 2등으로, 아니 결국은 꼴등으로 보내 드리고 만다. 예배에 참석하리라 굳게 다짐해 놓고 다른 약속을 잡는다든지, 기도 중에 휴대전화를 받는 다든지, 그러다보면 하나님은 어느새 저 뒤편에 밀려나 있다.

이 찬송가의 작가인 크로스비(F.J.Crosby, 1820-1915)가 평생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로 지냈음에도 이처럼 은혜로운 찬송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영이 깨끗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고백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비장애인들처럼 세상 것에 한눈팔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archangels)’도 보고 ‘복되신 구세주 예수’도 본다. 관련 성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시편146편 1,2절의 말씀은 크로스비 자신이 최초의 원고에 가사와 함께 적었다.

찬송가 오른 쪽 위편의 고딕체로 쓰인 JOYFUL SONG은 알렌(C.G.Allen, 1838-1878)이 작곡한 멜로디의 이름으로 영어 원문 후렴의 마지막 가사인 ‘ever in joyful song’에서 딴 것이며, 곡명 옆의 IRREG.는 가사의 운율이 불규칙적(irregular)으로 되어있다는 뜻이다.

작사, 작곡자 옆의 1869년은 이 곡을 처음 발표한 주일학교노래집(Bright Jewels)의 출판년도이며, 우리나라엔 ‘찬성시’(1898)에 베어드(A.A.Baird)선교사의 번역으로 처음 실렸다. 처음부터 “찬양하라”의 4운율로 만들어져 지금껏 부르지만 영어 원문은 “Praise Him! Praise him!”의 2,2운율로 되어있어 후렴의 맨 마지막 가사처럼 모두 “찬양! 찬양!”으로 만들었다면 더 음악적이며 시적인 감흥이 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재개발과 교육의 필요성

글 정희영 총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우리나라 청소년의 세계관이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음은 뉴스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 본인들 보다 몇 살 아래인 학생들의 돈을 뺏고 각목을 휘둘러 목숨을 잃게 하는 사건,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사건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며 잘못된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인본주의 교육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인본주의 교육이 시작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9세기 말 복음을 위해 내한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세운 학교와 그 교육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언더우드와 스크랜턴 등이 세운 근대식 학교에서 듀이 밑에서 학위를 받은 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 곳에서 듀이의 철학을 공부하고 왔다. 일제 강점기를 맞아 지하에 숨어 있던 그 유학파들이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 한 예가 1950년 미군 정권 하에서 미국에서 듀이를 연구한 오천석이 '새교육'이라

는 슬러건을 내걸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이 때 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교육과정의 교육 철학은 인본주의의 거장인 듀이의 교육철학에 의해 구성되어진다.

우리나라 교육이 인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대부분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 진화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세계사에서는 “인류는... 아프리카 땅에서 진화하였고”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지학사에서 나온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인류의 시조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개골의 용량도 작아 유인원에 가까웠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가운데 3학년이 배우게 되어 있는 「윤리와 사상」에서는 인간이란 어떤 고정 불변의 실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교육적 노력,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가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계몽주의의 선구자인 존 록크(John Locke)의 견해와 일치한다. 또한 옹고 그림의 기준은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환경이 바뀌면 그 것에 의

해 옳고 그름의 기준도 바뀌게 마련이다. 즉,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볼 때 청소년들의 세계관이 인본주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될 수밖에 없음을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청소년들은 어떠한가? 기독교 청소년들 역시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의 세계관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한 90%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아담과 이브는 역사적인 인물인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70%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 배울 때는 창조에 대해 배웠으나 삶의 현장에서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진화론적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겨우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으로 인해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는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본주의와 다원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물결 속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재는 몇 권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거의 외국책이다. 이러한 상황 앞에 기독교인 교육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상과 같은 현상은 포스트모던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뒷짐만을 지고 있을 것인가? 자신의 전공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할 것인가? 전공한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그 일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인 행동을 미룰 것인가?

UTT 청소년 세계관교재 개발 위원회

David A. Noebel의 〈Understanding the times, 이하 UTT〉은 미국의 기독교세계관 교육기관 중 하나인 Summit Ministries(www.summit.org)에서 발간한 기독교세계관 훈련교재이다. UTT는 기독교 신앙을 견고히 하고, 반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변호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된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세계관 훈련 교재이다.

UTT는 세계관의 정의와 역할, 특히 오늘날 문화의 상황 속에서 세계관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의 영역인 신학, 윤리, 생물, 심리, 사회, 법, 정치, 경제, 역사를 기독교, 이슬람, 세속적 인본주의, 막시스트,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각각의 입장을 기독교세계관으로 평가하고 있다. UTT를 포함하여 Summit Ministries는 초등, 중등, 고등, 주일학교 과정으로 세계관 교재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것을 교육과정으로 하여 교회, 학교, 홈스쿨링을 통해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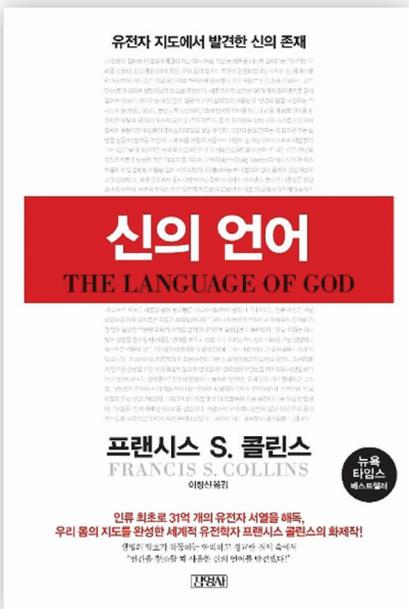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청소년 세계관교재 개발 위원회에서는 UTT를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세계관 교재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UTT를 번역하고, 각 장의 내용을 토론하였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세계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세계관 설문조사와 교과서 세계관 분석을 실시했다. 현재는 이것을 토대로 UTT의 핵심내용과 포맷을 살리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세계관 교재를 집필 중에 있다.



신의 언어 (The Language of God)

프랜시스 S. 콜린스, 저, 이창신 옮김, 김영사, 2009

글 박희주 명지대학교 과학사학과 교수



4년 전 영국의 대표적인 과학자중 한 사람이며 이 시대의 대표적 무신론자로 꼽히는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국내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터넷서점(yes24)에 달린 150여개의 리뷰 글에서 이 책이 끼친 영향의 단편을 읽을 수 있었다. 몇 개만 소개한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책을 읽는 일주일 동안에 무너져 가자, 마음이 아팠다. 그간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결국 종교는(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고통스런 현실을 잠깐 잊게 해 주는 물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은 대다수의 독자들처럼 저도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신이 있다고 믿었고, 신이 없다는 회의가 들기 시작한 후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나에게 만들어진 신은 하나의 길이 되었다.”

『신의 언어』를 소개하는 서평에 『만들어진 신』을 길게 언급한 이유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킨스를 반박하는 많은 책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도킨스와 필적하는 중량급 과학자가 복음주의 신앙을 변호하는 책을 쓴 경우는 『신의 언어』가 처음이다.

프랜시스 콜린스

프랜시스 콜린스는 아폴로 11호 이후 최대의 과학프로젝트로 일컫는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이끈 과학자로서 2003년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발표한 인물이다. 전 세계에 방영된 행사를 통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하느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선포했고 콜린

콜린스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이성적 선택일 수 있으며 나아가 신앙의 원칙과 과학의 원칙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이 책의 집필목적에서 말하고 있다.

스는 “지금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있던 우리 몸의 설계도를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에 저는 겸허함과 경외감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p.7)

콜린스는 『신의 언어』 머리말에서 집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이성적 선택일 수 있으며” 나아가 “신앙의 원칙과 과학의 원칙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p.8) 첫 번째 목적은 이성적 선택의 결과는 무신론이라는 도킨스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 응답이다. 둘째 목적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조화를 보이는 데 있다. 콜린스는 과학과 종교 “양쪽의 조화는 이 논쟁의 극단을 점령한 자들이 외치는 귀청이 떨어질 듯한 주장에 가려지고” 있으며 “적대 세력 간의 점점 고조되는 불협화음은” 우리를 혼란과 실망에 빠뜨린다고 탄식한다. 콜린스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양 극단으로 도킨스와 젊은지구창조론을 지목한다. 콜린스는 대립 대신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 세계관이 더없이 만족스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콜린스의 신앙여정

콜린스는 이 책의 1장에서 자신의 신앙여정에 대해 말한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 다닌 적은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회의론으로 기울다 대학원 시절에는 급기야 무신론까지 가게 된다. 당시 콜린스는 지각 있는 과학자가 신을 믿는 것은 ‘지적 자살 행위’라고까지 생각했다. 이러한 콜린스의 무신론을 돌려놓은 책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였다. 특히 그에게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은 루이스의 ‘도덕법’ 개념이었다. 이는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며 그 법의 기원은 신일 수밖에 없음을 콜린스는 확신하게 된다. ‘도덕법’ 개념에 대한 콜린스의 논의는 10쪽이 채 되지 않아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독자를 위한 과학자의 논의로서는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정작 평가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과학자로서 콜린스의 기독교 변증이다. 이는 3장에서 등장한다.

과학자로서의 콜린스를 무신론에서 돌려놓은 것은 ‘빅뱅(대폭발)’이었다. 현대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점이 있으며 대략 140억 년 전의 대폭발로부터 우주는 시작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또는 무엇이 대폭발을 초래했는가”라는 의문은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의문이며 콜린스는 대폭발을 설명하려면 “신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유물론의 기반은 물질이며 물질의 궁극적 기원은 대폭발이다. 그러나 대폭발의 원인은 콜린스의 지적과 같이 현대과학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는 과학적 이성을 강조하며 현대과학의 결론은 무신론이라고 주장해 온 도킨스 같은 유물론자들의 한계이기도 하다. 3장은 과학자로서 저자의 강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기독교와 과학, 그리고 우주의 기원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평자에게 가장 흥미롭게 와 닿은 부분은 이 책의 두 번째 목적을 다룬 7-10장이다. 기독교와 과학 특히 우주와 인간의 기원 문제를 둘러싼 소위 창조-진화 문제에 대해 저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콜린스는 무신론, 창조론, 지적설계론, 그리고 자신의 관점인 바이오로그스네 가지 관점을 소개한다. 7장은 무신론에 대한 소개이자 강한 비판이며 도킨스의 주장들을 주된 타깃으로 삼는다. 8장에서는 도킨스의 대척점에서 있으며 국내에 창조과학이란 이름으로 널리 소개된 ‘젊은지구창조론’을 다룬다. 콜린스는 지구연령이 6천년-2만년이라고 믿는 젊은지구창조론에 대해 도킨스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날을 세운다. 이는 “과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공격하여,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 세계관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에 오히려 그 둘의 틈을 더욱 벌려” 놓으며 “과학에서나 신학에서나 지적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9장에서는 창조과학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지적설계론을 다룬다. 콜린스는 “지적설계론은 진지하게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젊은지구창조론에 비해서는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실험적 증명도 제시하지 못했고 핵심적 주장을 뒷받침할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실패한 이론”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린다. 특별히 콜린스가 문제 삼는 부분은 소위 ‘빈틈을 메우는 신’이다. 이는 당대의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을 신의 개입으로 돌려 해결하는 방식을 일컫는데 지적설계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대표적인 지적설계론자 베히가 제시하는 ‘환원불가능한 복잡성’을 보자. 이는 분자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생물학적 현상들은 너무나 복잡해 진화론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며 최선의 설명은 초월자의 지적설계란 주장이다. 콜린스는 과학의 발전이 지적설계 대신 그 틈을 메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며 그 예로 혈액의 응고과정, 눈, 박테리아의 편모에 대한 최근의 과학이론을 소개한다.

이 책은 젊은지구창조론이 과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공격함으로써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 세계관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에 오히려 그 둘의 틈을 더욱 벌려 놓으며, 과학에서나 신학에서나 지적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바이오로고스

콜린스는 이상의 세 가지 입장을 설명한 뒤 이들 모두는 기독교와 과학을 분열시키는 입장이며 조화를 위해서는 네 번째 입장인 '바이오로고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이오로고스는 그동안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알려졌던 입장에 콜린스가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진화라는 용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거부감을 감안한 작명인데 그리스어로 생명과 말씀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콜린스는 그 핵심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한다.

- . 우주는 140억 년 전 무에서 창조됨
 - . 최초 생명체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일단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가 시작되고 부터는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이 불필요
 - . 인간도 진화론적 과정의 일부로 탄생했으며 유인원과 조상을 공유
 - . 하지만 정신적 본성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성(예, 도덕법)
-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는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콜린스는 믿는다.

유신론적 진화론, 그리고 아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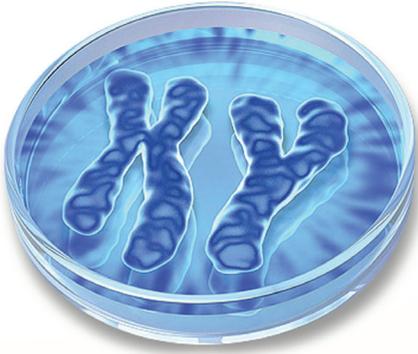
평자가 보기에 유신론적 진화론은 조화의 측면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다. 하지만 유신론적 진화론도 콜린스 자신이 비판한 '빈틈을 메우는 신' 문제를 비켜가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당연히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을 포함한 우주는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나아가 자연을 창조한 이후 신은 자연의 운행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믿는 이신론의 입장이 아니라면 유신론적 진화론 역시 자연은 창조주의 지탱하는 손길을 필요로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에는 어떤 형태로건 신과 연결되는 접점이 존재

하며 이는 자연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빈틈'이 된다. '젊은지구창조론'이던 '지적설계론'이던 혹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던 빈틈의 종류와 크기만 다를 뿐 '빈틈'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을 손쉽게 빈틈으로 간주해 신의 개입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최선을 다해 피해야하지만 이러한 빈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유신론적 자연관이 가능한 것처럼 빈틈을 문제시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평자가 느끼는 또 다른 아쉬움은 저자의 어휘선택과 표현에 있다. 이 책이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 독자층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의 상당수가 지지할지 모르는 '젊은지구창조론'에 대한 비판에서 '지적 파멸'과 같은 극단적 표현은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평자도 개인적으로 '젊은지구창조론'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지만, 형제 기독교인을 이 같은 용어로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와 과학의 조화를 이룰지는 몰라도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화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아쉬움을 뒤로 한다면 이 책은 도킨스를 필두로 쏟아지는 유물론의 공세로부터 유신론을 변증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한때는 무신론자였던 세계적인 과학자가 자신의 복음주의 신앙체함과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국교회에 '젊은지구창조론' 일색으로 소개된 창조-진화 담론의 편향성을 고려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의 언어 (The Language of God)

: 유신 진화론에 대한 비판

글 이승엽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바이오융합과정 교수, 지적설계연구회 회장

1993년, 세계 6개국 2천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총지휘하여, 10년 만인 2003년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2006년 출간하고 <신의 언어>는 국내에는 2009년 11월에 번역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프랜시스 S. 콜린스는 세계적 권위를 지닌 유전학자로서, 오랫동안 생명의 암호가 숨겨진 DNA를 연구해왔다. 예일대학에서 생화학을 연구한 후, 미시간대학에서 의학유전학자로 활동하면서 낭포성섬유증, 신경섬유종증, 헌팅턴병과 같은 불치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결함을 발견하는 데 기여해왔다. 대학 시절에는 열렬한 무신론자였으나, 유전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은 후 의학으로 전공을 바꾼 뒤부터 종교적 신념의 진정한 힘을 주목하게 되었다. 최첨단 유전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인 그는 책에서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으로의 전향한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무신론 진화론자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과학계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임을 밝힌 그의 용기있는 고백이 무척 고맙게 느껴진다. 또한 신앙과 과학의 조화에 이루려는 그의 고민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많은 다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물론적, 무신론적 세계관을 거부하면서 “진정한 과학자는 종교를 가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나 “진화는 모든 종류의 초자연주의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인간 본성에 관하여>를 쓴 에드워드 윌슨과 같은 무신론 진화론자들에게 유신론적 진화론자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증한다. 아마 이 책은 무신론을 설파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과 대비를 할 수 있

는 유신론자 과학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콜린스 박사가 말하는 무신론자에 대한 유신론 변증들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는 그의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신앙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유신론 과학으로서 지적설계론의 가능성을 시도하는 기독교인 과학자로서 콜린스 박사가 주장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입장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콜린스의 지적설계론 비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신의 언어> 7장에서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다루고 8장에서는 ‘신앙이 과학을 이겼을 때’라는 부제로 창조론 중에서 주로 ‘젊은지구론’을 비판한다. 9장에서는 ‘과학이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지적설계론에 대한 그의 입장을 다룬다. 콜린스는 지적설계론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이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험과 관찰을 통해 납득할 만한 틀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 이론으로 자리잡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반론). 또한 그는 지적설계론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영역에 초자연적인 존재를 끌어들이 필요성을 상징하는 일종의 ‘빈틈의 하나님(God of the Gaps)’ 이론이며 지적설계는 전지전능한 존재를 태초에 생명의 복잡성을 직접 계획해 놓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간섭하는 어설픈 창조자의 모습으로 묘사한다고 비판한다 (신학적 반론). 콜린스 박사는 지적설계를 다음의 세가지 명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1, pp.185-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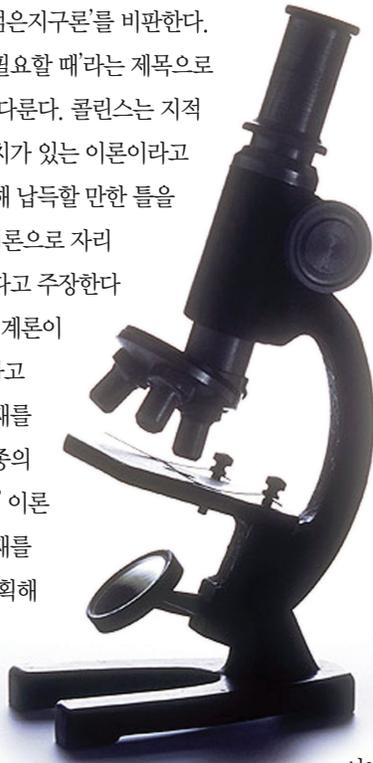
(1) 진화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확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를 저지해야 한다.

(2) 진화는 자연의 미묘한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근본적 결함이 있다.

(3) 진화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다며 진화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지적설계자가 개입해 필요한 요소를 공급했음을 분명하다.

콜린스는 다른 지적설계론 비판자들과 유사하게 지적설계론의 기본적인 전제를 오해하고 있다. 진화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단순히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 ‘자연선택과 돌연변이 매커니즘을 통한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 콜린스가 말하는 진화에 의한 새로운 생명체가 출현했



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단언하지만 정작 그가 제시하는 진화의 증거는 지적설계론자들도 받아들이는 ‘시간에 따른 변화’나 공통조상에 대한 내용들이며 진화가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대진화의 매커니즘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자연선택의 진화에 의한 생명체의 출현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를 갖고 있으므로 더 이상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 그는 고집스런 주장은 어쩌면 호전적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과연 “무작위적 변이에 작용하는 자연선택이라는 다윈주의 메커니즘이 오늘날의 모든 생물학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하기에 충분인가?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창조론자이거나 지적설계론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진화론자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최근에 국내에서 번역 출판된 <진화론을 탐험하다: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질문>이란 책은 자연선택에 의한 점진적인 진화와 단일 공통조상을 주장하는 신다윈주의 진화론에 대한 진

화론자들의 비판과 학술적인 토론을 다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지적설계론자인 르하이 대학교의 생화학자인 마이클 비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을 가진다는 공통 혈통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에 대해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다.”[2, p.142] 그는 하나의 공통혈통이 아닌 다수의 기원을 가진 공통 조상들을 받아들인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단일 공통조상으로부터 자연선택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탄생하였다는 신다윈주의 전제를 비판하면서 어떤 생명체의 구조에서는 자연선택에 생길 수 없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존재하며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본다. 지적설계론에는 공통조상을 받아들이는 마이클 비히 교수를 포함할 만큼 매우 다양한 입장의 과학자들이 분포되어있다. 그러나 모든 지적설계론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는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언급한 “수많은 연속적이고 작은 변형을 통해서 생길 수 없는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깨질 것이다”[3]라는 자연선택의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증을 연구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한 콜린스는 이러한 진화에 대한 과학적 반증을 연구하는 것은 ‘빈틈의 하나님(God of the Gaps)’이며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고 본다.

콜린스의 유신진화론에 대한 비판

그는 <신의 언어>에서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3가지 선택 즉, 무신론/불가지론, 창조론, 지적설계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본인이 바이오로고스(Biologos)라고 지칭한 유신론적 진화론을 이 책의 10장에서 설명한다. 콜린스가 제시하는 유신론적 진화에 대한 6가지 공통된 전제는 다음과 같다.

- 가) 우주는 약 140억 년 전에 무에서 창조되었다.
- 나) 확률적으로 대단히 희박해보이지만, 우주의 여러 특성은 생명이 존재하기에 적합하게 짜여졌다.

다) 지구상에 처음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생명이 탄생한 뒤로는 대단히 오랜 세월이 걸쳐 진화와 자연선택으로 생물학적 다양성과 복잡성이 생겨났다.

라) 일단 진화가 시작되고 부터는 특별한 초자연적 존재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마) 인간도 이 과정의 일부이며, 유인원과 조상을 공유한다.

바) 그러나 진화론적 설명을 뛰어넘어 정신적 본성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성이다. 도덕법(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고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간 사회에서 신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그 예가 된다.

콜린스가 지지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크게 신학/철학자들 그룹과 기독교 과학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윌리엄 헤스커, 낸시 머피, 하워드 반 킬, 존 폴킹혼, 케네스 밀러 그리고 오웬 진저리치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1991년 필립 존슨의 <심판대의 다윈>을 출간하면서 지적설계론이 시작되면서 유신론적 진화론 그룹과 수많은 논쟁과 있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서로는 대립적인 구도를 보이고 있다 [4,5]. 유신 진화론에 대한 비판은 수많은 고통과 시행 착오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근본적인 비판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음 세가지 과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자 한다.

- A. 자연선택의 진화 매커니즘에 대한 창조 능력의 범위
- B. 유신론적 과학으로서 설계 관점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 (이것은 과학의 정의와 방법론의 범위와 연결되어 있다)
- C. 종교와 과학의 교도권에 대한 입장

첫 번째 콜린스의 유신 진화 비판은 자연선택의 창조 능력이 모든 생명체의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콜린스의 유신론적 진화의 입장 6가지 중 다) 라) 마)는 콜린스가 주장하는 자연선택의 창조 능력의 범위를 말하는데 유신론적 진화론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생물학자인 케네스 밀러도 콜린스 같은 자연선택의 창조 능력이 모든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충분하다고 바라보지만 존 폴킹혼과 같은 유신 진화론자의 경우는 다윈주의 진화 메커니즘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6,7]. 앞서 말한 대로 적지 않은 무신론 진화론자들도 신다윈주의적 자연선택의 창조 능력이 모든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자연주의적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학술적인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연선택의 생명체의 창조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증거는 압도적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도무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두 번째 지적설계론자로서 콜린스의 유신 진화를 비판하는 관점은 과학적 방법론을 방법론적 자연주의(methodological naturalism)로 한정하는 유신 진화의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생물철학자인 마이클 루스를 비롯한 진화론자들의 입장에도 유사하며 지적설계론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와 연관되어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지적설계론이 신다윈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반증을 찾는 방법론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지적설계론자 반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설계’라는 비자연주의적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은 과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지적설계론에 대한 비판에는 몇가지 콜린스와 같은 유신 진화론자들 간과하는 것이 있다. 지적설계에서 정의상 지적인 원인에 의한 ‘설계’가 반드시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방법론적 자연주의만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한정하면 일반 대중들은 이것을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로서 받아들이면서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공식적인 합의가 없이 주류 과학계에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만을 생물학의 과학적 방법론으로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유신론적 과학의 경험적 탐지를 비과학으로 치부하

는 것은 과학철학계에서 그동안 많은 논쟁이 되어왔다.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심오한 질문 앞에서는 과학도 무력하다보니 유신론자 중에 어떤 이는 RNA와 DNA의 출현을 신의 창조 행위를 설명할 기회로 삼는다. (중략) 과학자 중에 생명의 기원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사람이 없는 현재로서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가설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은 진실일지언정 내일도 진실이 되란 법은 없다. 이 경우를 비롯해 아직 과학이 풀지 못하는 문제에 신의 신성한 행위를 끌어들이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p.97]

그러나 콜린스가 언급한대로 지적설계론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영역에 초자연적인 존재를 끌어들이는 필요성을 상정하는 일종의 ‘빈틈의 하나님(God of the Gaps)’이라고 지적설계론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하게 유신 진화론자들은 ‘빈틈의 다윈(Darwin of the Gaps)’이라는 동일한 구도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콜린스는 책으로 예제로서 언급한 생물체 게놈 서열과 유전 정보에 관한 최근의 과학적 결과들[8,9]이 신다윈주의적 견해를 강화시킨다고 말하지만 동일한 결과들을 오히려 설계론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실험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알기 어려운 빈틈에 다윈주의적 해석만을 고집하며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의 윌리엄 템스키와 같은 정보이론 지적설계론자들의 수학적 증명에 기반한 생명정보의 보존과 증가에 관한 학술적인 논문들이 출판되고 있는 것은 지적설계론이 ‘빈틈의 하나님’이 아닌 과학적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콜린스는 이 책에서 천문학의 빅뱅 이론과 물리 상수의 미세조율(fine tuning)에 대해서는 설계론적 관점을 지지하는데 유독 생물학에서는 이러한 설계론적 관점이 비논리적이고 보는 그의 경직된 사고는 비판 받을 수 있다. 콜린스의 <신의 언어>에 대한 생물학자 로버트 폴락(Robert Pollack) 서평이 사이언스 학술지 2006년 9월 29일에 게재되었는데 폴락은 콜린스가 물리학 분야에서 언급

한 설계론적 해석을 비판하였다[10]. 이처럼 콜린스는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설계론적 관점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콜린스의 유신 진화론에 대한 비판은 종교와 과학에 대한 관계와 그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신론적 진화론, 즉 바이오로고스는 이제까지 나온 여러 견해 가운데 가장 일관되고 영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나중에 한물갔다는 이유로, 과학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증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지적으로 엄정하고, 당혹스러운 여러 질문에 답을 제공하며, 과학과 신앙이 두 개의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서로를 지탱하면서 ‘진실’을 쌓게 만든다.” [1, p.212]

고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와 진화론 철학자인 마이클 루즈를 비롯한 대다수의 진화론자들과 종교와 과학의 일치를 주장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모두 과학과 종교의 NOMA(겹치지 않는 교도권, Non-Overlapping Magisterium)을 주장한다. 종교의 교도권은 ‘궁극적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다루는 반면, 과학의 교도권은 ‘경험적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둘은 실체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각도일 뿐이며 서로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신론 진화론자뿐만 아니라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NOMA를 주장함으로써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유일한 과학으로 한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적설계론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이 생물학적 복잡성에 관한 진실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면 실재에 대한 잘려진 관점(Truncated view of reality)을 유지하면서 과학과 종교의 단순한 화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콜린스는 책에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해 C.S. 루이스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했다. C.S. 루이스는 다윈의 이론이 현대판으로 종합되는 신다윈주의 출현을 보고 죽었지만, 1990년대에 시작된 지적설계 이론이

공론화되는 이전의 인물이다.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자주 인용되는 그의 진화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은 콜린스 역시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가 과연 오늘날의 유신진화 진영에 섰을지는 미지수다. 루이스의 진화에 대한 관점에서 간과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콜린스가 책에서 언급한 다윈주의 진화에 대한 루이스의 개방적인 입장 [11][1, p.210]이 훗날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12]. CS 루이스 협회(CS Lewis Society)의 톰 우드워드(Thomas Woodward)는 오늘날의 논쟁 구도 속에서 루이스는 지적설계의 편에 섰을 것으로 평가한다[13]. 루이스가 과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입장을 오늘날 유신 진화-지적설계 논쟁 구도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음을 사실이지만, <고통의 문제>가 출판된 이후 루이스가 다윈주의를 비판하는 동료의 견해를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편지의 기록과, 그가 오랫동안 자연주의 철학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으며, 또한 그의 영향이 초창기 지적설계를 지지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미친 영향을 본다면 단지 유신 진화론 입장으로만 해석될 인물은 아니다.[14]

맺는 말

결론적으로 필자는 지적설계론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지적설계론이 설계론적 관점으로 생명체의 기원과 복잡성을 증명하는데 실패한다면 이 이론을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유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신다윈주의적 진화, 즉 자연선택에 의한 생명체의 창조 능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된다면 필자는 기독교인으로서 기꺼이 유신 진화론자가 될 것이다. 지적설계론자인 템스키도 지적설계론의 반증가능성에 대한 유사한 언급을 했는데 콜린스는 지적설계의 몰락을 단언하듯이 이 말을 책에서 인용한다.

“박테리아 편모처럼 복잡하고 섬세하고 통합된 경이로운 생물 체계가 다윈이 말하는 점진적 과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특별한 복잡성이 환상에 불과하다면, 아

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구태여 지적인 원인을 끌어 들일 필요가 없으니, 지적설계가 반박될 수 있다. 오컴의 면도날이 지적설계를 깔끔하게 잘라내는 경우다” [15] [1, p.197]

콜린스도 책에서 언급했듯이 지적설계론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대한 예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박테리아 편모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어왔다. 같은 유신 진화론자인 케네스 밀러 교수는 박테리아 편모와 같이 회전하는 바늘코 모양의 세포 펌프인 T3SS(Type 3 Secretory System)가 박테리아의 선구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16] 다른 진화론자인 팔렌 연구진은 38개의 편모 단백질들을 연구하여서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지만[17] 미니크 교수 등의 지적설계론 생물학자들의 추가적인 연구에 의해서 이를 반박하면서 과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박테리아 편모에 대한 진화론자와 지적설계론자의 논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2] 8장 분자기계를 참조하기 바람).

필자나 윌리엄 뎀스키도 최소한 지적설계론의 반증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진화론자들의 과학적 논쟁을 받아들이며 토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증거들은 일부 존재하지만 모든 생명체의 기

원과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과학적 매커니즘과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과학적인 방법론에 검증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반증은 자연주의적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며 확증만을 찾아나가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의 고집을 어떻게 설명해야만 할까? 그들이 비판하는 근본주의 창조론자들 처럼 그들 또한 다윈주의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아닐까? 모든 생물학적 증거에 대한 과학적 판단에서 이상하리만큼 다윈주의적 입장만을 고수하는 유신 진화론자들은 그들이 지적설계론을 ‘빈틈의 하나님’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동일하게 ‘빈틈의 다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책 <신의 언어>가 무신론적 세계관에 대한 훌륭한 유신론적 변증을 보여주지만 진화가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유신론 과학자인 필자에게는 이 책이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참고문헌

(1) “신의 언어”, 프랜시스 S. 콜린스, 이창신 역, 김영사, 2009
 (2) “진화론을 탐험하다: 생명의 진화에 대한 87가지 질문”, 스티븐 마이어 외 지음, 이승엽, 김용빈 역, 21세기북스, 2011
 (3) “종의 기원 “ 찰스 다윈 송철용 역, 동서문화사, 2009
 (4) “심판대의 다윈”, 필립 존슨,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사, 2006
 (5) “Doubts about Darwin: A History of Intelligent Design”, Tomas Woodward, Baker Pub., 2004
 (6) “Exploring Reality: The Interwining of Science and Religion”, John Polkinghorne, pp.50-51
 (7) Belief in God in an Age of Science, John Polkinghorne, p. 94
 (8) William A. Dembski and Robert J. Marks II, “Conservation of Information in Search: Measuring the Cost of Success,”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A, Systems & Humans, Vol. 39 (5), pp. 1051-1061, 2009
 (9) William A. Dembski and Robert J. Marks II, “The Search for a Search: Measuring the Information Cost of Higher Level Search”, Journal of Advanced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Informatics, Vol. 15 (5) pp. 475-486
 (10) “DNA, Evolution, and the Moral Law” Robert Pollack, Science, Vol 313 (5795), pp. 1890-1891
 (11) “고통의 문제”, C.S. Lewis, 이종태 역, 홍성사, pp.129-130, 2005
 (12) “C. S. Lewis on Creation and Evolution: The Acworth Letters”, 1944-1960, Gary Ferngre, <http://www.asa3.org/ASA/PSCF/1996/PSCF3-96Ferngren.html>
 (13) http://www.apologetics.org/archive/Signature_In-The_Cell-1.wma
 (14) C. Hwang, “콜린스, 유신진화론을 설득하다. 누가 설득당할 것인가?” <http://idnews.tistory.com/49>
 (15) “Design Revolution”, William A. Dembski, p. 282, 2004
 (16) Kenneth Miller, “The Flagellum Unspun; Michael Behe, “Irreducible Complexity: Obstacle to Darwinian Evolution”, in Debating Design, eds. Dembski and R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7) Mark J. Pallen and Nicholas J. Matzke, “From the origin of species to the origin of bacterial flagella”, Nature Reviews Microbiology 2006

실행위원회 개최

지난 4월 1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촌동 사무국 세미나실에서 실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회원용 세계관 교재 개발, 전국 지부 지역장 후보 추천, 추모예식 프로젝트 종결보고, 한중국제학술대회 개최여부에 관한 토의 등을 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5기 과정 MT

4월 8~9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이천시 푸른초장기도원에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 4기 MT가 있었습니다. 강진구 교수(고신대), 임춘택 박사(서울대), 장유진 PD, 유지은PD 등 전담강사들이 함께한 이번 MT에서는 상호간에 친목과 팀웍을 기르는 영상기획과 스틸컷만을 이용한 영상제작, 편집, 조별 발표와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은 오는 8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월드뷰 로고변경

기존 월드뷰 잡지의 로고를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바뀐 로고에서  형상은 세계를 보는 바른 눈동자를 표현한 것으로 세상을 두 팔로 품는 모습으로도 보여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로고에 담긴 정신을 잘 살린 세계관 전문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로고를 만들어주신 열림원 정종모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WORLD VIEW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비 및 후원(2011.3월)

개인회비_단위(원)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창현, 박정준, 윤경선, 정필규, 조성진, 한인관, 황정현, 3천5백 노승욱, 유경상, 정경식, 정세열, 최원길 5천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김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상욱, 김성민, 김은하, 김정명, 김정심, 김정준, 김중규, 김철수, 김태운, 김현승, 김혜창, 남상수, 남서희, 마민호, 박기언,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배기선, 배도환, 배무런, 백동희, 범경철, 소중화, 손세용,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현주, 심정하, 양숙, 양영태, 유창은,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운,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인주, 이한기, 이향숙, 임선제, 임재영, 임준택, 임형준, 장남기, 장현일, 전정진, 전종화, 전충국, 정경식, 정법채,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창근, 조혜경, 주경식, 최광수, 최용준, 허재일, 홍승기, 황나란, 황의서 6천 이수정 1만 강미라, 강서희, 강은정, 고현경, 김경희, 김광순, 김성상, 김세령, 김세중, 김영애, 김영완, 김영화, 김은혜, 김일환, 김정일, 김정호, 김홍섭, 김효숙, 류화원, 박대원, 박두한, 박시운, 박창우, 박해일, 서성록, 송정은, 신경훈, 신효영, 안석, 안승범, 안용준, 양성만, 오혜정, 유진호, 유영준, 유지황, 유해무, 윤동수, 윤매옥, 이관후, 이광호, 이규현, 이길형, 이명수, 이명현, 이성수, 이승엽, 이시영, 이윤석, 이운재, 이정길, 이종국, 임일택, 전성구, 전태수, 정은희, 정현주, 조용현, 조현철, 주성철, 한혜실, 허찬영, 1만2천 김찬호 1만5천 김선화, 최동원 2만 강대훈, 권민규, 김옥태, 김용식, 노용환, 명윤수, 박영혜, 박한배, 배은경, 변우진, 신현호, 양성일, 우시정, 원호영, 이대환, 이명희, 전명희, 최한빈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김중호, 박상진, 우병훈, 윤석찬,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정동섭, 정은애, 추태화, 황정진, 김중락, 박문식, 박신현, 장수영, 조무성 5만 김성락, 김시호,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김재경, 송인규, 이승구, 정희영, 현은자 7만 이승환 10만 김승태, 김원수, 이소연, 손봉호, 김의원, 박상은, 전광식, 김태황, 윤완철 15만 양승훈 36만 유재봉 100만 김승욱 합계 5,137,500원

후원기관_단위(원)

1만 빛과소금교회 3만 두레교회 5만 개봉교회, 군산성광교회, 다운교회, 새언약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산정현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성덕중앙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은혜로교회, 자운교회, 호산나교회 20만 국군중앙교회, 명성교회, 수영로교회, 샘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0만 새로운교회 70만 사랑의교회 합계: 3,790,000원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에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일정의 회비 납부자)에게 드리는 혜택

1. 월간 세계관 전문지 <Worldview>와 학술지<신앙과 학문>을 보내 드립니다.
2. 석사 이상 회원분들은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원으로 자동등록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각종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과 칼럼,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4.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1회 CUP 출판사의 신간을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6. 학문 연구에 뜻이 있으신분은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_1 구좌 : 5,000원

일반회원 : 2구좌(1만원) 이상

학생회원 : 1구좌(5천원) 이상

임원 : 6구좌 (3만원) 이상

이사 : 20구좌(10만원) 이상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Tab하게
될 것이다!

슈퍼미디어 GALAXY Tab

읽고 보고 듣고 찾고 통화한다 Life is Tab! Tab! Tab!

- e-Reading 8만권의 도서, 8종의 신문/잡지, 100여종의 만화, 연구보고서, 전문지를 Tab 하다
- e-Learning 전자사전,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 교과서를 Tab 하다
- Multimedia 카메라, 지상파 DMB, VOD서비스, 3D게임을 Tab 하다
- Utility 아이나비 3D 내비게이션, 디지털 액자, 여행가이드북을 Tab 하다
- Smart work 탭만의 음성/영상통화, 문서 수정, PC처럼 인터넷을 Tab 하다

QR코드로 즐기는,
“컬투와 함께하는 택시”

www.tabtaxi.com에서 18개의 택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2011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대학원세션 주제발표

일시 : 2011. 5. 21(토) 10:00 ~ 12:00
장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창의홀

1분과: 기독교철학 사회: 최태연(백석대)

노승환(백석대) 솔라이머마하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감정에
관련된 개념연구: 종교론과 신앙감정론을 중심으로

오승훈(백석대) 마이클 폴라니의 믿음의 개념에 대한 분석

송동민(백석대) 칼빈 사상에서 섭리와 자유의지의 양립 가능성 문제

배해정(백석대) 한나 아렌트를 통해 본 정치의 의미

박나라(백석대) 주체개념을 통해서 본 좋은 삶 : 마르틴 부버에 부처

이성주(백석대) 루이스의 기적이해

2분과: 인문학/ 기타 사회: 신현호(백석대)

강정우(고신대) 칭의에 대한 공동선언문 비판

강상우(백석대) 수용거부 변혁(A: assimilation, R: refusal, T:

transformation)의 과정: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

신효영(총신대) 음악 전문 케이블방송(MTV)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방승미(총신대) TV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에 나타난 인성덕목

분석: 기독교적 성품을 중심으로

김성은(연세대) 지공주의와 성경의 토지법

이정규(총신대) 몬테소리 아동관에 대한 개혁주의적 고찰

2분과: 경제/경영 사회: 이윤재(송실대)

이명현(인천대) 아브라함 카이퍼의 노동문제관

이규현(한남대) 교회 정체감 척도 개발과 전략적 적용

황의서(서울시립대) 루터-칼빈-웨슬리의 경제원리

황희영(영산대) 기독교 세계관 활동과 성경적 학문의 확장
을 위한 세 가지 방향

3분과: 문화/예술 사회: 추태화(안양대)

김경완(송실대) 한국의 근현대 문화예술과 기독교

조상영(대전체고) '포스트 휴먼' 현상과 '지적설계 미술'의 세계관

윤성은(한양대) 기독교 영화의 서사적 동향과 전망: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작품 중심으로

안용준(백석대) '마틴 루터의 예술론

4분과: 사회복지 사회: 김동기(목원대)

최광수(총신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양혜원(총신대) 대형교회 복지사업 비전 및 발전방안 :

김희수(한국성서대) 사랑의교회 복지사업 중심으로

손병덕(총신대) Do Church Attendance, Confession of

Faith, Individual Performance of Faith Influ-

ence on the Sexual Activities among

Christian Youth?

(교회참석, 신앙고백 그리고 신앙실천이 기독교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강은주(총신대) 다문화 가정

교수/일반세션 주제발표

주제 발표 및 토론 : 13:30~15:00

분과별 발표 및 토론 : 15:00~16:10 (발표 1-2)

16:10~16:30 (휴식)

16:30~18:00 (발표 3-4)

1분과: 교육 사회: 박상진(장신대)

정희정(총신대)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

레스를 통해 본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 연구

이은실(한동대) 기독교 교육과정개발 학위논문 현황 분석 및

대학원 지도 방향

류기철(고신대) 미국 기독교 개혁 교단의 기독교 학교 역사에 대한 고찰

박선희(한남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교수전략 탐색

5분과: 문학/세계관 사회: 최태연(백석대)

박미령(용인대) 시적 이미지의 조율

신현호(백석대) George Herbert(조지 허버트) 시에 나타난 신앙의 갈등

윤 일(고신대) 근본생태주의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비판과 대안

범경철(경희대) 산상수훈이 사형제도에 주는 교훈

6분과: 상담/기타 인문학 사회: 김용민(침신대)

박은배(석교교회) 건강한 기독교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족 치료

연구: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채희용(서울기독대) 기독교장비자존감 증진을 위한 통합적 상담

모델에 관한 연구

권태경(총신대) 기독교 역사서술의 문제: 한국사 교회사 분석을

중심으로

박문식(한남대) 기독교대학 특성화 사업추진 사례분석



2011년 춘계학술대회

기독교학문 연구 현황과 발전방향

2011 5. 21(토) 10:00-19:00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홀

성경적 세계관을 학문에 적용한 결과와 방향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
2011년 기학연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시간계획

- 09:30 - 10:00 대학원생 등록 (창의홀)
- 10:00 - 12:00 대학원생 논문 발표 (창의홀)
- 12:00 - 13:00 발표자/ 토론회, 참석자 등록 (인문홀)
- 13:10 - 13:30 개회 및 청년논문상 수여 (인문홀)
- 13:30 - 15:00 주제 발표(인문홀)
 - 우리나라 기독교경영연구추세와 향후방향 김홍섭 (인천대)
 - 적정기술에 대한 기독교적 비평 장수영 (포항공대)
 -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육학관련 연구동향과 분석 정희영 (충신대)
- 15:00 - 18:00 세션별(6개 분과) 발표
- 18:00 - 19:00 만찬

찾아오시는 길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TEL. 042)629-7114
 승용차 대전IC → 동부4거리에서 우회전 원편 홈플러스 → 중리사거리
 에서 10시 방향 좌회전 → 원편 증산도빌딩 부근 좌회전 → 한남대 북
 문진입 대전IC에서 한남대 북문(문과대학)까지 약 3.6km
 시내버스 대전역에서 314번, 711번 버스 한남대학교 정문 하차